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2년 1월 6일(목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감염병 관리과	담 당 자	• 보건정책팀장 강경희 ☎ 440-2711 • 담당자 박미란 ☎ 440-2713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			

인천에 하루 빨리 ‘감염병전문병원’ 세워져야

- 민·관 협의체 3차 회의 열어,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 모색 -
 - 시, 의료계·시민 단체 등 긴밀한 협조, 민간·공공 의료 한 뜻으로 인천 유치 최선 다할 것 -

인천광역시는 1월 6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최근 질병청에서 발표한 ‘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’ 관련 인천 지역 내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 구성해 운영 중인 ‘감염병전문병원 추진 민관 협의체’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 날 회의에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, 인천의료원,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건강과 나눔 등 민,관이 함께 모여 인천의 숙원 사업인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긴 시간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며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.

민관협의체 회의에서는 인천지역 선정을 위한 그동안 추진경과, 앞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야 될 방안

등을 모색 했다.

인천은 해외 유입입구가 첫발을 내딛는 관문도시로서 매년 5천 만 명의 입국 검역 대상자중 90%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경지역으로 환자유입의 최초 경로에 해당되는 만큼 방역의 최일선이며 최적지이다.

또한 상급병원 등 의료기관 전체가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고, 국회의원, 시의원, 시민단체 등이 함께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유치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갖추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.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환자를 전국 최초로 발견 및 치료했고, 신종 감염병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다. 게다가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, 감염병이 3~5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의 요충지인 인천에 하루 빨리 감염병 전문병원이 세워져야 할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
인천시는 의료계·시민 단체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, 감염병전문병원 인천 선정을 위해 민간·공공 의료가 함께 동참하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